

#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HELLP 증후군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

가천의대 길병원 신장내과

진경순 · 유승민 · 이현희 · 정우경 · 이준승 · 이종호

**배 경 :** HELLP 증후군은 임신성 고혈압인 전자간증과 자간증의 특이한 형태로, 급성신부전이 합병증의 하나로 동반될 수 있으며 그 빈도는 5-20%로 보고 되고 있다. 급성신부전이 동반되는 경우, 산모의 이환율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임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**방 법 :** 1994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HELLP 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산모 39명을 대상으로 HELLP 증후군 진단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이 1.3 mg/dL 이상인 군과 1.3 mg/dL 미만을 입원 기간 중 유지하였던 군으로 나누어 병력지를 토대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.

**결 과 :**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HELLP 증후군이 15명, 정상신기능 HELLP 증후군은 22명이었다.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HELLP 증후군의 진단 시 평균 연령은 29.9±4.0세, 평균 임신 주수는 35.1±2.5주, 평균 혈압은 158/107 mmHg, 초산부가 11명 (64.7%)이었고, 13명 (76.5%)에서 출산 후 신부전을 동반한 HELLP가 발생하였다. 주 증상은 상복부 통증이 58.8%로 가장 흔하였고 두통, 시야흐림, 오심 구토, 하혈 순이었다. 진단 시 검사결과와 중앙값 (범위)은 혈색소 9.5 g/dL (7.1-13.4), 혈소판 7900/mm<sup>3</sup> (2700-9600), AST 287 IU/L (61-2980), LDH 1712 IU/L (871-7146) 크레아티닌 1.6 mg/dL (1.3-3.1), 알부민 2.5 mg/dL (1.5-3.5)이었다. 1명이 투석을 받았으며 17명 전원이 5일 (중앙값, 2-32일) 후에 신기능이 회복되었다. 산모 사망은 없었고 태아사망은 2명 (11.8%) 이었으며 파종성혈액내용고증이 47.1%, 자간증이 29.4%, 태반조기박리가 23.5%, 폐부종이 47.1%에서 관찰되었다. 신부전군은 정상신기능군에 비하여 초임녀 (23.5% vs 0% p=0.02) 가 많았고 임신 주수(32주 이상, 88.2% vs 50.0% p= 0.01)가 길었으나 연령, 혈압, 임신성 고혈압의 과거력, 증상, 출산 전후에 따른 진단 시기, 초산빈도에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. 신부전군이 AST (520±688 vs. 168±13 IU/L, p=0.005)가 높았고 PT (20.3±25.8 sec vs. 12.4±1.15 sec, p=0.002), aPTT (48.5±40.5 sec vs 30.2±3.5 sec, p=0.04) 및 HELLP 회복기간(7.6±7.3일 vs. 3.8±1.6일)이 길었다. 최저 혈소판 수치가 5000/mm<sup>3</sup> 미만인 혈소판 감소증의 발생 빈도 (64.7% vs. 27.3%, p=0.02)가 신부전군에서 높았으며 파종성혈액내용고증 (47.1 % vs. 0%, p=0.00)의 발생 빈도, 역시 신부전군에서 높았으나 폐부종, 태반조기박리, 태아사망, 자간증의 빈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.

**결 론 :** HELLP 증후군에 병발한 급성신부전은 비교적 예후가 양호하였고 급성신부전에 관련된 임상인자로는 초임녀, 임신주수, 혈청AST, PT, aPTT, 혈소판감소증, DIC 동반 유무로 조사되었다.